

2023
September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주빌리

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Table of Contents

- 1 **담임목사 인사말****
- 2 **성도 인터뷰 : 박용기 장로****
- 5 **은혜의 해 선포, 희년 부흥회****
- 7 **제4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 10 **선교지소식****
- 12 **교회소식****
- 17 **9-10월 행사안내****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서 이제 제법 가을의 문턱에 다가선 듯합니다. 변하는 계절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았듯이 우리 삶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소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들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어 회중 50주년 회년을 향해 가며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4:18-19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해방 역사가 플러싱과 뉴욕 지역에 선포되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여러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만나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작은 빛이라도 최선을 다해 밝혀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회년의 소망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어서 지역이 깨끗하게 되고, 후러싱제일 교회가 있어서 동네에 꽃이 피고, 우리 교인들 가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3일간 회년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훌륭한 강사분들 모셨습니다.

꼭 참석하시어서 50주년 회년의 비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주일에 제 손을 꼭 잡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이후로 자라면서 주일성수를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 동대문에 있는 창신성결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서울 왕십리감리교회(옛 꽃재예배당)에서 비슷한 직분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박용자 권사와 결혼한 다음 서울 전농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겼고 1975년에 장로 직분을 받고 섬기다가 1993년 5월 30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후 한국 기독교 TV (CTS) 창립 멤버로 초청받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한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뉴저지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담임 장철우 목사)에 출석하면서 10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본교회에서 성역 40년 은퇴(찬하) 예배를 드리고 원로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2012년 후러싱제일교회로 교적을 옮겨서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러싱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민 온 후 매일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는 후러싱제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5남매(아들2, 딸3)를 보내 주셨습니다. 모두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딸 이(박)은정 권사(사위 이한수 장로) 큰 아들 박은호 권사(며느리 박윤정 권사) 둘째 딸 박혜리 집사(사위 김정수 집사) 둘째 아들 박성호 목사(며느리 조성은 사모) 셋째 딸 박혜경 전도사(사위 김인태 안수 집사) 외 9명의 손자 손녀와 1명의 귀여운 증손자가 있습니다.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러싱제일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뉴욕에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포레스트 힐즈(Forest Hills)였습니다. 그곳에서 큰 마트를 경영하시는 후러싱제일교회 주동진 장로님과 주안 권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후러싱제일교회 최지원장로님(내과 의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지원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게 된 동기는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회장으로부터 박용기 장로를 잘 부탁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뉴욕 CBMC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태워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강사가 이승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후러싱제일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각 부서장직을 책임지신 분들이 한결같이 열심히 하여 성실히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같이 협력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나 좋았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순수 우리말 기독교 TV(타임워너케이블 KCTV 채널 533)를 하루 24시간 전일 방송을 자체 채널로 뉴저지, 맨하탄, 퀸즈 모든 지역, 스테튼 아일랜드에 방송할 수 있게 되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교회 관련된 내용만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미국 50개 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순수 우리말 기독교 TV 방송을 24시간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 귀한 텔레비전 방송 운영은 후러싱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방송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러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KCTV는 지금 단비 TV(C 채널)로 회사 이름을 바꿔서 뉴욕과 LA에 방송망을 넓혀 현재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 IP TV(양방향 TV) 체계로 업그레이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CTS와 뉴욕 KCTV가 연합하여 주제를 “성령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뉴욕에 오다”로 하고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Worship Korea in America] 행사를 2002년에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25명의 복음성가 가수가 대거 참여해서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당일 행사에 2,000명 이상의 관객이 본당, 복도, 소예배실, 체육관에 가득 찼고 늦게 도착한 100여 명은 주차장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었으므로 그 후로 매년 뉴욕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행사였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후러싱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세우신 성숙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꾸준히 부흥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누구도 허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 관계로 몹시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세워 주실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진리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성도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저희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러싱제일교회는 제일 좋은 장소(location)에 우뚝 서 있습니다. 훌륭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주위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와 육신의 질고로 출석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후러싱제일교회의 기둥과 버팀목 역할을 할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장년들이 많이 줄었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다시 이전 이상으로 부흥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모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주년 희년을 향하는 교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후러싱제일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희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경사이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쁜 절기에 빛진 자에게 탕감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이 해방되고 희년의 주인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가 되어서는 안될 줄 믿습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 없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잘 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온전히 타서 주님께 드리는 향내 나는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담임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최고 책임자로 위임하셨으며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는 무거운 짐을 지신 분입니다.

담임목사님은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자이신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은 목자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희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고 예년과 다름없이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교회가 되어 어진 목자를 따를 줄 아는 어린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해 선포, 희년 부흥회

은혜의 해 선포, 희년 부흥회

일시: 2023년 9월 25일(월) - 27일(수) 저녁 7시

강사:

25일(월): 김주찬 목사(탈북인 주는평화교회) ‘북한 지하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26일(화): 노지훈 목사(움직이는교회) ‘세상 속의 빛과 소금’

27일(수): 이후정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희년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의 해 선포”를 주제로 하는 희년 부흥회가 9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됩니다. 2025년 한어 회중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4:18-19 말씀에 근거한 ‘희년교회’를 목표로 모든 사역과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된 이민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지기 기대하며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김주찬牧사는 탈북인으로서 2018년 주는평화교회를 개척한 뒤 위로재단을 세워 탈북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단의 회복과 아픔의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 통일 교회 모델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교회 노지훈 목사는 낡고 허름한 공간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전통찻집과 문화센터 등 지역과 공감하는 소통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이후정 목사는 “희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합당한 신앙과 영성은 무엇인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의: 목회실 혹은 신기성 전도사 973-908-3051)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19절)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원

희년컨퍼런스 & 대안공동체 탐방

주제 : "희년 교회 희년 목회"

장소 : 뉴욕 후러싱제일교회&대안공동체

일시 : 컨퍼런스_9.25~27

탐방_9.22~25 & 9.28~10.4

발표자 이후정교수(감신대 총장),
김정호목사(후러싱제일교회),
유성준목사(한국서번트리더십훈련 대표),
장위현목사(뉴잉글랜드연회 감리사),
조원태목사(이민자보호교회협의회 위원장),
김주찬목사(탈북인 주는평화교회),
노지훈목사(움직이는 교회),
이정아사모(부천 선한목자교회),
임종한교수(인하대의대),
박원옥목사(산돌교회)

한국문의: 노지훈 목사 (010-5524-2554)

미국문의: 신기성 박사 (973-908-3051)

제4회 KMC-UMC-WMC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회의

기독교대한감리회(KMC), 연합감리교회(UMC), 세계감리교회협의회(WMC)가 주최한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앰배서더 호텔과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6년 미국 휴스턴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 이후, 2017년에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2018년에는 애틀랜타에서 3차 회의가 열렸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4차 회의는 5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매일 2회의 특강과 2회의 평화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날 첫 번째 특강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신범식 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분석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인도한 박도웅 목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중양위원으로,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역사를 정리한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세 번째 특강은 세계감리교회협의회를 대표해 세계교회협의회 제네바 사무소에 주재하는 독일의 로즈메리 밴너(Rosemarie Wenner) 감독이 <분열 극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부제: “독일에서의 지속적인 여정과 에큐메니컬 파트너로부터의 배움”)으로 강의했습니다. 밴너 감독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교회의 경험을 전하며, 한국 교회에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밴너 감독은 1989년 3월 말에 열린 세계감리교연맹과 여성연합교회의 유럽지역 세미나에서, “유럽 감리교 여성교회 회원들이 동독과 서독의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촛불이 켜졌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밴너 감독은 한국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믿음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의 단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계속, 계속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특강을 책임진 사람은 <통일미래로>의 대표인 장상 박사로 <통일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장 박사는 오늘날 통일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며,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핵 억제, 핵 방어에 쏠려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남과 북의 소통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 박사는 통일 선교는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북에 밥상공동체를 이루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듯 용서와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하듯 은혜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한국 교회는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쁨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통일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사무총장 전남병 목사는 “많은 어려움과 비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창 1:27)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마 25:34-40)을 생각하며, 양극화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철거민,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돕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제4차 라운드테이블의 참여자들은 특강과 토론 및 보고를 마치고, <제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탁회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회의를 통해 결의된 4가지 실천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1. 매년 8월 15일의 전(前)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며, 한국 교회들과 함께 기도할 것
2. 전 세계 감리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이 대화와 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연대할 것
3. 평화를 위해 일하는 청년과 여성 지도력을 양성하여, 젊은이들이 평화프로세스에서 평등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것
4. 전 세계 감리교회가 평화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KMC-UMC-WM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순례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다.

이날 제4차 라운드테이블 폐회예배의 설교는 세계선교부 이사회 의장이자 위스컨신 연회를 주재하는 정희수 감독이 전했습니다.

이날 제4차 라운드테이블을 마치며,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인 토마스 비커튼(Thomas Bickerton) 감독은 연합감리교뉴스와의 대화에서 이번 4차 회의가 매우 교육적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교육적인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북한의 핵무장을 둘러싼 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 세계의 삶을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모두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커튼 감독은 또 이 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난민들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현장에 실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옹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진정한 변화의 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모임이야말로, 회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두라스 복음 태권도 선교 동역자 되신 뉴욕 후러싱제일교회와 김정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올여름은 무더위와 태풍, 홍수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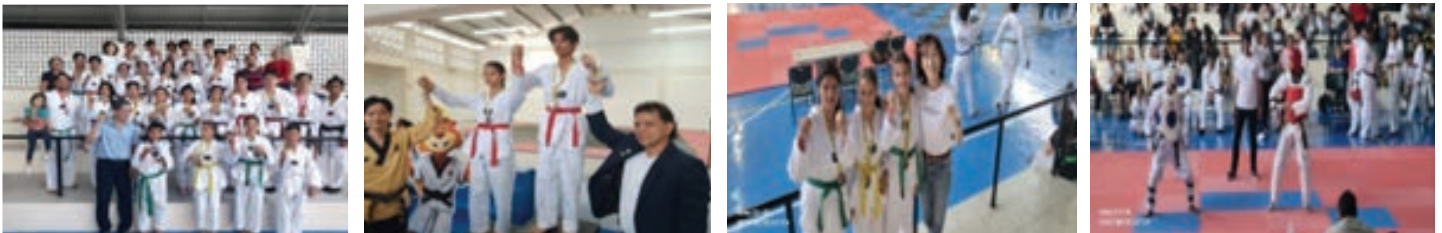
이곳 온두라스는 평년 기온을 되찾아 오후 한때 무더위를 식히는 열대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교사역은 주님의 은혜와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1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28년 LA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을 목표로..

말씀을 붙들고 비전과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에 온두라스 수도 떼구시갈빠에서 코로나 이후로 첫 번째 태권도 시합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짧은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태권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연습한 학생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사범님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 훈련을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범님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올림픽 드림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승단 시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 정도 학생들이 태권도를 못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학생들이 열심히 수련하여 50여 명의 학생들이 승단 시험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리더자들이 함께 수고하여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새로운 벨트와 승급증을 받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올림픽 드림센터와 함께 한방 클리닉 힐링센터를 통하여 원장 이훈 집사님과 양순열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방, 침사역 진행해 주심으로 학생, 교사, 현지 목회자 그리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육신의 고통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의정부 은혜교회(김경숙 목사님, 김범수 형제 가정)에서 후원하여 이곳 프로그래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루이스 목사)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신경수 목사님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교통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님이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4팀의 단기선교팀(아틀란타중앙교회, 아틀란타한인교회, 어번오펠라이카 한인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이 오셔서, 온두라스에 주님의 복음과 큰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갔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7살 제레미 어린이로부터 의료선교에 동참해 주신 89세 되신 소니아 김 권사님께서 참석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선교사역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장년 세대의 선교사역의 열정을 이제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소식 (8월 교회행사)

성가대 찬양대 연합 친교 모임

지난 8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성가대 찬양대 미디어팀 사역자 등 함께 모여서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화자 장로님의 비장의 무기(?) 등갈비 김치찌개와 함께 정성스럽게 곁들여진 음식들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처럼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사역자들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블레싱 스토어 이전

비전 센터 1층에 있었던 블레싱 스토어가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블레싱 스토어의 많은 물건을 목회실 스테프 전원과 블레싱 스토어 사역하시는 권사님들이 함께 3일에 걸쳐서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블레싱 스토어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물건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VBS)

올해 여름성경학교가 오는 8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Stella-Shine Jesus Light” 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 8월 Activities

방학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Trampoline Park에 다녀왔고 Cooking & Bowling 행사도 했습니다.



유초등부 소식지 '쥬빌리 키즈' 발행

9월 새 학기부터 Jubilee Kids 월간지가 출시되며, Let's Play at Church라는 슬로건으로 유초등부 3부 순서가 진행됩니다. 성가대, 찬양팀, 게임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Six Flags 야유회

지난 8월 5일 토요일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Six Flags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즐기는 아이들을 보면서 활기찬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YG Summer: CCM Concert

지난 8월 13일 주일예배 후 뉴저지 Prudential Center에서 열렸던 Phil Wickham & Brandon Lake Summer Worship Nights에 다녀왔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예배 콘서트였는데도, 아이들은 콘서트 내내 자리에서 서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YG Graduation Ceremony

8월 20일 주일에 8학년의 고등학교 진급식과 12학년의 중고등부 졸업식 및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졸업한 학생들의 그동안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축하하였습니다. 동시에 12학년들이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 뉴욕을 떠나기 때문에 송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새로운 대학 생활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YG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8학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12학년 졸업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YG Thank you: Hallelujah Appreciation_BBQ

지난 6월 23~24일(금~토)에 있었던 Hallelujah Revival에서 학생 봉사자로 섬겼던 아이들의 Appreciation 모임이 8월 20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삼겹살, 햄버거 등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날 섬김을 아낌없이 해주었던 아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YG Welcome: Entrance Ceremony

8월 27일 주일 유초등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6학년 학생들의 환영식을 했습니다. 형, 누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고, 형과 누나들도 6학년 동생들을 너무 귀여워하며 함께 인사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함께 비전센터를 견학하며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게 되지는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중고등부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YG Moms Vision Center Cleaning

Vision Center로 이전한 후, 중고등부가 잘 적응하는 것을 도우려고, 학부모님들께서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함께 모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 모임을 하고, 비전센터 주방도 말끔히 청소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M

지난 8월 19일 EM은 글렌 코브(Glen Cove)에 Kayaking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새로 EM에 가입한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M 회원들은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물가에서 즐겁게 지냈고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정의(JFON, Justice For Our Neighbors)

지난 21일(월) 저녁 6시에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웃을 위한 정의(JFON)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역은 저소득 취약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JFON은 무료 법률 서비스, 이민 교육, 이민자 권리 옹호 등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들을 존엄과 사랑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인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9~10월 행사 안내

한국학교

가을학기 한국학교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한국어, 역사, 문화, 정체성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9월 9일 ~ 12월 9일 까지 매주 토요일 14주 강의 (11월 25일 추수감사절 휴강)

수업시간 : 오전 9시30분 ~ 12시

장소 : 교육관 2층 각 교실

대상 : Pre-K 부터 5th Grade

문의 : 목회실 또는 최홍규 집사

스포츠 교실 가을학기

오는 9월 5일을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12주 일정으로 스포츠 교실 가을학기가 열립니다. 건강도 지키고 함께 친교도 나누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종목
 - a. 탁구 (화: 오전 10:30~오후 12:30/ 금: 오후 6~8)
 - b. 검도 (화&목: 오후 7:00~9:00)
2. 문의: 목회실 또는 김현정 집사(917-478-4868)



Backpack Blessing

금년 Backpack Blessing은 9월 3일 3부 예배 때 실시합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